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근거없이 포상금 지급

광주시 감사위, 도시철도·영어방송·문화재단 감사

부당 업무처리 등 38건 적발 4억6000만원 회수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공사, (재)광주영어방송, (재)광주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3곳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모두 38건을 적발, 시정과 개선 명령을 내렸다. 주의를 경고 받은 직원만 21명, 기관경고는 7건이나 됐다.

도시철도공사는 17건에 700여만원 회수 명령, 관련자 4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영어방송은 주의 등 5건과 부적절한 업

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기관 경고 2건을 받았다.

문화재단은 16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회수 4억4600만원, 기관경고는 무려 5건이나 됐다.

감사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물품 구매 과정에서 부당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 뒤 입찰을 포기한 업체의 계약금을 세입 처리 하지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내부 방침만으로 모두 57건에 포상금 2300여만원을 나눠주는 등 돈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인사 난맥상도 감사 결과 지적

됐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승진자 결정도 2배수 이내만 추려내고 사장이 최종 승진자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합리한 인사 가점적용이나 신규 채용 예비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가 부적절하거나 환승주차장 관리부실, 문화전당역 캐노피 설치공사 감독 업무 부적절 등도 지적됐다.

영어방송의 경우 2012년부터 3년간 심야시간, 주말과 휴일 등 사용 성격이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가 무려 66건에 600만원에 달했으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 최소 소요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 6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규정도 어겼다.

모두 16건이 적발된 광주문화재단은 공

연장 사용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당하게 감면해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빚고을 시민문화관과 전통문화관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감면한 사용료는 각 11건과 3건에 2800여만원과 2억500만원에 달했다. 수당이나 연봉, 호봉 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 회수해야 할 금액이 무려 4억 4000만원이나 됐다. 관리업무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거나 성과연봉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 특히 신규 채용 직원의 연봉이 과다하게 책정돼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화재단은 이 밖에도 하자보수 보증금 미징수, 부적절한 선급금 관리와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집행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문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시 제공>

광주시-국방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 체결

광주시는 3일 국방부에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자연생태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한

다. 용역 결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광주시와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면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실시계획 및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등산 정상의 자연생태계 환경복원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6억원 누락

시 감사위, 15곳 시정 조치

광주 기초단체들이 백화점, 대형마트에 부과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6억여원을 누락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1~2014년 부과해야 할 6억300만원이 누락됐다.

감사위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 중 15곳의 건축물 바닥면적,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자치구에 누락분 추징 등 시정조치 조치했다.

누락액은 서구가 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1억2500만원, 동구와 북구 각각 5300만원, 광산구 1400만원 등이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아카데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서구 5·18 교육관 대회의실 1층에서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지방과학기술 진흥 1829억 투입

전남도가 내년에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182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점 추진분야인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에 관련 예산의 절반이 넘는 1056억원(57.7%)을 배정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2016년 전남도의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심의했다.

전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전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관

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2017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실적과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선순환을 통해 전남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R

&D 투자 특성화·내실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로 2015년 주요성과와 2016년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96개 단위사업에 대한 재원별,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웠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R&D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과 과학기술진흥센터 업무 현황도 보고했다.

김범수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2016년에는 R&D종합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여러 중앙부처의 과학기술 진흥사업, 연구개발 사업들을 확보해 지역 과학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구례 오산 사성암 지하수 맛 '으뜸'

전남도 '명품 지하수 베스트 5' 선정

구례군 문척면 오산 사성암, 장흥군 구례군 문척면 오산 사성암, 장흥군 북이면 원덕리, 장성군 황룡면 지하수가 전남에서 가장 맛이 좋은 '명품 지하수 베스트 5'로 선정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 내 공무원 연구 모임 '명품지하수 판정단'은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지하수 수질 자료 등을 토대로 명품 지하수 후보지 20곳의 수질 시료를 채취·분석해 '명품 베스트 5'를 뽑았다.

구례군 문척면 오산 사성암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PH)가 8.8~9.0인 천연 알카리성 물로 분석됐다.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가 7.8인 약 알카리성 물로 갈슘, 마그네슘, 철, 아연 등 미네랄이 풍부하다.

해남군 마산면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가 7.5~8.5로 불소가 적당량 함유돼 있어 치아우식증, 치주염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칼슘과 나트륨 함유량이 많고 미량의 미네랄 성분인 리튬과 몰리브덴을 함유하고 있다.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가 8.3의 높은 수치로 불소

가 적당량 함유돼 있다. 칼슘과 나트륨 함유량이 많고 미량의 미네랄 성분인 스트로튬, 몰리브덴, 바나듐을 함유하고 있다.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약리효과를 지닌 게르마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성군 황룡면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가 7.5~8.5로 마그네슘, 스트로튬, 리튬,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등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들 지하수 부근에 명품 지하수임을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주변 오염원 조사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 지하수를 쓰는 음식점의 원산지 안내 표지판에 명품지하수 지정업소라고 표기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관광책자에 명품 지하수를 소개해 관광객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공무원 연구모임들이 제안한 것 중 최우수상을 받은 '명품지하수 베스트 5'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선착순 동, 호수지정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편리한 교통편

문의

062 383-6400